

문화특집

제4회 정읍사문학상

대상: 정월숙 / 수목장영호 추수상: 김일범 / 대구역서 춘우상 / 반남 순연서
일시: 2016. 12. 1 (목) 14:00 주권: 정읍문화회



제4회 정읍사문학상 공모전 대상 정월숙씨 '내장산 벽련암을 가다'

제4회 정읍사문학상 공모전 대상에 정월숙씨의 시 '내장산 벽련암을 가다'가 선정됐다.

또 우수상은 김길영씨의 동진강 흠바람(수필)과 윤우항씨의 '내장산스케치(시)', 그리고 최일길(수필)씨의 '전봉준을 만나다'가 차지했다.

정읍사문학상은 정읍이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문항임을 기리고 참신한 문학을 발굴하기 위해 정읍문화회(회장 김준식)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지난 9월 한 달 간 시필과 수필 부문으로 나눠 공모전에 모두 189점이 접수됐다.

전북도 문인협회 소속 문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인물은 물론 정읍의 종파와 정읍정신을 담은 좋은 작품이 많았다"며 "올해는 특히 주제에 충실하고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 많은데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공감된 감동을 주는 작품이 많았다"고 밝혔다.

부문별 심사평을 보면 "문은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는 물아일체적 표상이 좋고, 형상화가 매우 흡족한 작품들이었고, 산문(수필)은 동화정신을 되새기고 정음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과 유·무형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작품들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있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동학혁명 백산대회 일 제정 건의안' 청와대 등 건의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청와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각 정당, 전라북도지사, 부안군수,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등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안에서 부안 군의회는 "우리 나라가 불건사회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위대한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에서 백산대회일은 반봉건, 반 외세"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4대 명의'와 '12개 조 기율'을 제정함으로써 혁명군의 명분과 당위성이 완성된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백산대회일의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념일 후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사)한국역사문화원은 지난 2월 백산면사무소에서 가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일 재조명 학술용역'에서 근거자료로 '홍재일기'를 소개하며 백산대회일이 1894년 3월 26일(음력)이었음을 제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바이오텐(주),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협약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 의약품 제조업체인 바이오텐(주)이 입주를 확정했다.

김생기 시장과 바이오텐(주) 김영철 대표는 5일 시장실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텐(주)은 이날 협약에 따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7천791㎡(2,356평)의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1천32㎡의 제조 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약 12명의 신규 고용인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텐은 복변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친환경 농약 등의 기술이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첨단산업단지에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장동력사업 추진 탄력”

김생기 정읍시장, 국비 5046억원 확보... “열정으로 이룬 성과”



기자회견 중인 김생기 시장

김생기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5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황, 국회에서의 지역예산 증액 제한과 SOC 사업 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5천466억원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과 성원을 바탕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기대 이상의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읍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5천억원으로, 시는 목표액을 웃도는 5천46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6%인 68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반국속사업)이 26건 984억원, 3대 국책연구사업 등 첨단과학 산업 관련 18건 1천293억원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산업 발전 예산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신규사업 62건 55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34건 382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김 시장은 “국회 심의에서 이처립 많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중앙부처 항우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 부처 수시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7월과 11월에만도 9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중앙정치권의 풍부한 확충 및 산업 발전 예산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25억원을 비롯 태

인-산내간 국도 확포장 공사 20억원 등 7건 73억원이 반영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관련,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 전제조건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추후 전액 국비 사업추진 문제를 재협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정읍경찰서 신축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협소한 경찰서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접 학교의 학습 환경과 도심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주요 관심 국가사업으로 방사선 백신전용 특수시설 확충사업, 식물자원센터 건립, 부전-쌍치간(국도 21호) 마무리 공사, 정읍국도대체(국도29호) 우회도로 개설, 제3공공매립장 조성공사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정 시민과 정치권, 출향인,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정읍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정읍 시민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도 신규 사업 발굴 활동에 나서 총 74개 사업을 발굴했고, 올해 2월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50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육교 재가설 예산 7억 확보

김제시, 지역국회의원·국토부·기재부와 소통의 결실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공사 국비 사업비가 확정 되었다.

김제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김제육교 재가설에 대한 2017년 사업비로 국비 7억원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정말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으로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김제육교(과선교)의 붕괴 위험성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식 김제시장은 2010년부터 도내 국회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김종희)등 정치권과 함께 공조하여 정부를 설득해 왔다.

철도청이 1985년 가설하여 김제시에 인계한 호남선 철도환단 김제육교(과선교)는 중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며 2011년 정말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써 2014년 9월부터는 차량통행 제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이에 참다 못한 김제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5만여명 넘게 서명을 받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 김제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비지원 건의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가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하면서 국비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한 결과 오늘날 같은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제시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김제육교를 철거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나로 뭉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교육 수강생 모집

김제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접수기간은 5일부터 23일까지이며, 교육과정 33개 과목, 수강생 1,005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김제시 18세이상 거주여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이번 교육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으로 창업자격을과정, 취미와 교양과정, 건강과정, 성인문화과정, 외국어과정 등이 있다. 수강료는 3개월에 1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면제된다.

한편 김제시 여성가족과 최일동과장은 많은 여성들이 수강 후에 취업,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은 물론, 건설한 취미, 건강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성인문화교육을 통한 답답한 마음을 한자한자 알아가면서 세상을 다시 보는 한글반은(수시 접수)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주민행복지원실 다양한 성과

‘우문현답’ 행정... 공공실버주택 선정·이동복지지원실 등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이 올 한 해 전국 최고 복지사회 구현 등을 위해 군민과 소통·공감·동행하면서 전 직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을 추진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예산 또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시책을 1건씩 발굴에 집중해 총 28건의 시책을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주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복 드림 찾아가는 이동복지지원실 운영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의 복지제도를 높여 왔다.

오복 드림 찾아가는 이동복지지원실은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정부3.0 생애주기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 부안군의 특색사업으로 부안읍을 시작으로 진행해 11월 말까지 읍면 방문 50회 150여 개 마을을 방문해 2000여 명의 주민들을 상담하고 250여 세대를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로 연계했다.

더욱이 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6년 공공실버주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공공실버주택 80호를 부안을 봉덕리에 건립해 오

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호국 보훈의 불꽃이 있는 전국 유일의 보훈회관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미래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으로 조성됐다.

여기에는 총 21억여원(국비 5억원, 군비 16억 원)을 들여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7개 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830㎡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나라사랑 호국 보훈 교육의 장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푸드마켓은 지난 7월 25일 개원해 현재까지 매출 2억 8000만 원, 현금 CMS를 통해 월 57만 원씩 기탁받고 있으며 월 10여 명의 이용자들이 찾아 부안군 주민 행복지원실의 복지정책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각종 평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화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 부문 전국 최우수 부서 선정,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희망 2016 나눔캠페인 부문 우수부서 선정, 의료급여사업 분야 1위 선정,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자원봉사로 꽃피운 김제시

김제시, 한국 최우수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김제시는 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자원봉사자의날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2016 대한민국 최우수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개소)’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 시스템 구축,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 기여, 생활민원불편 현장처리 및 복지기동대 운영, 자매결연도시 외의 신개념 자원봉사 해외봉사 불린투어등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제시는 그동안 민관협력력을 통한 최초 민·관·경 지평선 포미티 활동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봉사단체와의 혁신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매년 2,000여명의 자원봉사

자가 지평선축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김제시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인태비 98%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각종 동아리 등을 통하여 재능기부 및 봉사로 나눔 봉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이견식 김제시장은 “내 작은 촌밭이 다른 촌밭에 불을 내줘 줄수록 주변이 밝아지듯,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눔과 큰사랑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최우수 자원봉사 대상을 받게 되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시민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Mulberry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